



세계 최고속 풀컬러디지털인쇄기

후지제록스의 iGen3 국내 상륙

한국후지제록스(주)(대표 정광은, www.fujixerox.co.kr)는 지난 3월3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업계관계자 및 기자단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고속 컬러 디지털인쇄기로 평가받는 iGen3 발표회를 갖고, iGen3 국내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iGen3는 2003년 미국 및 유럽 시장에 소개되어 디지털 컬러 인쇄시장에 변혁을 일으키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제품으로 디지털 인쇄는 물론, 후가공기기의 추가구성을 통해 완전한 책 형태의 출판까지 가능하다. 400개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iGen3는 기존의 4기통 직열방식의 잉크드럼을 모두 없애고, '이미지 캐리어 벨트' 하나로 엔진을 설계해 오프셋에 버금가는 인쇄품질과 속도, 작업효율

성을 구현했다. 특히 획일적인 대량 오프셋 인쇄에서 다룰 수 없는 1대1 마케팅이 가능한 맞춤형 인쇄로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며, 개방형 모듈 및 다양한 RIP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의 환경에 맞도록 손쉽게 통합될 수 있다.

맞춤인쇄로 1:1 마케팅 강화에 적극

한국후지제록스는 기존 오프셋 인쇄에 의존해 왔던 도서출간, 학습지, 사보, 홍보물 등의 작업을 원판이 필요 없는 비용이 저렴한 디지털 인쇄로 대체하는데 iGen3가 크게 기여하는 한편, 수요자 요구가 다양한 맞춤형 인쇄 시장에서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후지제록스 정광은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컬러 인쇄기 iGen3 출시로 디지털 인쇄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앞으로 후지제록스는 iGen3를 통해 고객 특성에 따른 1대1 맞춤형 토털 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해 나가며 시장규모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Gen3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부산시 영도구 소재의 (주)아이엠씨의 이상락 대표는 "아이엠씨는 1997년에 DP4635 디지털프린트의 도입을 계기로 한국후지제록스와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공급자와 사용자가 아니라, 긴밀한 상호 협력과 신뢰로 윈-윈하는 비즈니스 동반자로 성장 발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것으로



도우마들이 iGen3 로 인쇄된 인쇄물을 선보이고 있다.



후지넥룩스가 부산에서 iGen3 발표회를 갖고 국내 시장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민는다”며 “수차례의 데이터 러닝 테스트와 검토 끝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iGen3를 통해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고속 풀컬러 디지털인쇄기로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좀 더 부합하고 보다 발전된 사업의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드라이잉크 채용, 인쇄품질 업그레이드

iGen3의 장비제어장치인 RIP은 DocuSP Parallel, 크레오, EFI 등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인쇄기 본체는 용지급지 부분, 출력 엔진 및 보정 부분, 용지배출부분으로 구성됐다.

급지부는 최대 1만매를 적재할 수 있는 2개 유닛(4개 트레이)이 기본이며 4개 유닛을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고 60~350g/m² 범위의 코팅/비코팅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출력 엔진 및 보정 부분은 용지입력, 이미지 재현, 이미지 출력, 광대역 양면 턴바, 자동 휨 조정장치 등으로 구성됐다. 최대 해상도는 600×4800픽셀/인치이며 최대 용지크기는 571×364mm이다. 급지부는 에어 방식을 채용해 용지 손상을 방지하고 휨이나 두께를 인식하여 자동 조정하고 급지 속도 조절, 용지 빼떨어짐 방지, 선후단 맞춤 조절을 통해 용지를 공급한다. 기존의 토너방식에서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드라이 잉크를 채용했고 분사 방식 개선을 통해 이미지 재현력을 극대화했으며 트랜스퍼 오버드라이브 장치

와 트랜스퍼 블레이드를 통해 용지의 밀착도를 강화,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출력되는 용지의 휨을 자동 조정하여 용지의 안정성을 향상했으며 DC614 Routine 조정으로 미세하고 정교한 고품질의 인쇄물 출력을 실현했다.

출력 배지부는 1개 유닛의 스테커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총 3개의 유닛을 옵션으로 부착할 수 있다. 메인 스테커는 75g/m²의 용지를 3천매 정도 적재할 수 있으며 시그나처, 무선철기, 펀칭기 등을 인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다.

PVC·라미네이팅 인쇄, 상업용 응용범위 확대

iGen3는 기존의 디지털 인쇄기를 통해 수행했던 작업 이외에도 독특한 문자표현, 이미지 및 그래픽으로 맞춤형 마케팅 캠페인이 가능하고 대리점과 제품생산에 맞춘 주문 제작형 카탈로그를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웹기반 관련자료, 독자적 마케팅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 맞춤형 재무데이터 보고서, 맞춤형 쿠폰, 다양한 우편물 발송 작업 등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 특히 드라이 잉크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토너베이스 제품보다 인쇄품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한편, PVC와 라미네이팅 표면에도 인쇄할 수 있어 상업인쇄 응용범위를 크게 확장했다.

iGen3는 현재 유럽 지역에 400여대, 미주 지역에 500여대 아시아 지역에 100여대 등 전세계에 1천여대가 설치돼 있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